

여의륜관음 좌상

사원의 전설에 따르면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가 쇼샤잔 산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그루의 벚나무 주위를 춤추며 신성한 경문을 읊고 있는 천녀를 목격했습니다. 천녀의 경문은 살아 있는 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난 보살로서, 자비의 보살인 여의륜관음을 찬양하고 있었으며, 여의륜관음이 장수와 번영을 가져다주고 모든 중생이 언제라도 극락정토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문에 크게 영감을 받아 쇼쿠 대사는 벚나무에 여의륜관음의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이 상은 1492년에 소실되었습니다. 현재의 상은 마니텐(摩尼殿) 중앙의 감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원래의 상과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1239년에 승려 묘카쿠가 조각했습니다. 다시 만들어진 이 상은 가마쿠라 시대(1185~1333) 초기의, 예술성이 풍부한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의륜관음은 모든 것에 구제의 손을 내밀기 위해, 죽은 뒤 어느 하나에 가게 된다는 여섯 세계인 육도를 여섯 개의 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의륜이란 ‘희망의 고리’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여의륜관음이 손에 들고 있는 두 가지 물건을 가리킵니다. 왼쪽의 한 손에는 번뇌를 파괴하는 보륜을, 오른쪽의 한 손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보주를 들고 있으며, 이 보물들은 여의륜관음이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겠다는 서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손에는 연꽃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진흙투성이 연못에서 연이 자라듯이 영적 수행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한 손은 손가락을 턱에 가만히 대고 명상하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의륜관음상은 원뿔형 왕관을 쓰고 있어 그 광명으로 영원한 은혜를 베푼다는 아미타여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몸체와 왕관은 검은 옷칠로 마무리되어 있으며, 옷은 보륜과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관음보살의 영지인 보타락산을 표현하는 노출된 바위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 왼쪽 다리에 올린 여의륜관음의 독특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